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2008 **1** 제179호(통권 398호)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권정호 교육감 특별 대담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 따뜻한 마음과 실천으로

전문가 초대석

수업기술 나누기 / 끌리는 수업은 1%가 다르다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 장/학/갯/러/리





겨울산 그리고 희망

겨울산에 가 보아라
가서
얼음장 아래 흐르는
소생의 봄노래 들어 보라.

겨울산에 서 보아라
서서
통바람은 몸 치받아

시린 나뭇가지 끝
가녀린 희망
올망졸망 매달린
예감의 눈동자 바라 보라.

시련은
고귀한 결실 위한
과정일 뿐
결코 좌절하지 않는
보람의 땀인 것을

겨울산 걸어 보라
인내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강인한 삶의 정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산짐승 발자국
굽이굽이 서려 있구나.

숨 가쁘고 살 에이는
겨울 산정 올라 보라
쉽 없는 도전과 시련
뼈 깎는 노력 없이
저 높푸른 희망
저 싱그런 미래
함부로 거들 수 없다는 것
몸으로 알게 되구나.

-
- 글 : 손국복 (합천 초계고등학교 교감)
 - 사진 : 김인수 (합천 초계고등학교 교사)



학생이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올해는 온 국민이 화합하여 국운이 융성하고, 우리 경남 교육이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교육자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경남교육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저는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는 교육에 힘쓰고자 합니다. 교육은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펼쳐져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께 진정한 학교의 모습을 되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은 새로운 경남교육 도약의 목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학교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교육가족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이 경남교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교육정책은 치밀하되 긴 안목에서 설정하고 교육행정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체제를 바로 세우는데 최우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과 도민이 힘을 합쳐 새해에 이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는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교실환경과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각종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며,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한 경남교육을!

둘째, 교사에게는 스승의 이름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행사 및 대회를 통폐합하며 과도한 시범학교를 과감히 축소하는 등 교육의 기본과 내실을 다져 가르침의 보람과 열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직문화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학교급식 및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 초·중학교의 완전한 무상교육 추진 등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정비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부정부패를 엄단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애석하게도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은 시행착오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지난날의 성과를 충분히 존중하여 안정과 개혁이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창한 정책보다는 현 교육제도 아래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경남교육의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대성과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새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전환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감과 화합의 경남교육을 기대하며, 희망찬 무자년 한 해도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자년 새해 아침

경상남도교육감



2008년도 경남교육 기본 방향

교육 지표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
- 학생이 행복한 교육 -



교육 시책

-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
-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
-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역점 과제

-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내실화
- 독서·논술교육 강화
-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 창의성교육 강화
- 무상교육 지원 확대

2008 1 제179호(통권 398호)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 1 장학갤러리
 - 겨울산 그리고 희망 / 손국복·김인수
- 2 신년사
 -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 / 교육감
- 6 기획특집/교육감과의 대담
 - 권정호 교육감 특별 대담
- 10 장학특집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 따뜻한 마음과 실천으로 / 이나연
 - 교사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 정재훈
 - 백화만발한 꽃밭을 가꾸는 마음으로 / 윤은주
- 16 전문가 초대석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관계 등록 제도 / 김현규
 - 교원의 정신건강(1) / 이재경
- 21 수업기술 나누기
 - 끌리는 수업은 1%가 다르다 / 고영미
 - 과학 수업 아이디어 / 윤송식
- 25 교육정보
 - 협동학습의 이해 / 제명한
 - 연금 소식 / 박진영
- 29 현장포커스
 - 더불어 사는 푸른 희망 가꾸는 곳, 한림초등학교 / 박금남
- 33 참여마당
 - 교원 마당 - 빨꾸디와 습지 / 고희병
 - 학부모 마당 - 보물섬 남해교육 성과 보고회 참관기 / 김종도
 - 학생 마당 -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이 준 지혜 / 주지영
- 39 향기나는 서가
 - 행운의 절반 친구 외 3편
- 41 교원지상갤러리
 - 그 곳에 가면 / 강정임

▶ 표지 사진 / 창녕 명덕초등학교 교사 안상환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이메일:janghak@gnedu.net

2008년 1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임성택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심광보
- 편집위원 : 김만호, 이병만, 박성년, 전미화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권정호 교육감 특별 대담

일 시 : 2008. 1. 4(금)

장 소 : 경상남도 교육감실

대담자 : 권정호 교육감, 임성택 장학관, 심광보 장학사



2008년도 시무식

주민 직선에 의한 제14대 권정호 교육감께서 2007년 12월 28일 취임하였다. 권정호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로 교직에 몸담은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대학의 교수에 이르는 등 초·중등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특별한 경력과 대학 총장의 이력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다하는 학교 만들기'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권정호 교육감 시대의 경남교육에 대해 특별 대담을 가졌다.

■ 교육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경남교육가족에게 취임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남교육가족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과감히 전환할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모

든 교육의 중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본청과 지역청, 직속기관의 모든 정책과 시강들은 학교를 향해야 합니다.

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교육가족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이 경남교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교육정책은 치밀하되 긴 안목에서 설정하고, 교육행정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감님께서서는 전시위주의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적하시는 전시위주의 행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경남교육은 '2006년 지역교육혁신평가 최우수', '200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2006년 전국 16개 시·도 중 교사만족도 11위, 학생만족도 8위, 학부모 만족도 9위로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교육환경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원하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다워야 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존경받고 깨끗해야 할 교육계의 참모습을 하루빨리 되찾도록 전 교육가족이 노력해야겠습니다.

■ 교육감님께서서는 학교를 '학교다운 학교'로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다운 학교는 어떤 모습의 학교입니까?

▶ 학교다운 학교란,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모든 교육 활동에서 본질적인 면이 지엽적인 면보다 앞서야 합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는 모든 교육의 중심점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미래를 꿈꾸고 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청과 지역청, 직속기관의 모든 정책과 시각들은 학교를 지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께 진정한 학교의 모습을 되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다운 학교는 교육감님의 평소 말씀처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 더욱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평소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교육활동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입시가 존재하고 특히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 교육제도 아래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경남교육의 내실을 점차 다져나가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문서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교사들에게 연수 기회를 확대하며, 교과 단위, 학년 단위의 교무실 편제 개편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또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시범학교 축소, 각종 행사의 통폐합,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한 학교장 공모제 확대 등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강사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확대하는 등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교육 행정은 교육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그리고 공무원노조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실 계획입니까?**

▶ 우선 학교에서도 공감과 화합의 교사 질서문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학교내에서의 이념과 갈등의 표출이 있다면 그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갈등은 경남교육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질과 목적을 바르게 하고, 서로간에 공감과 화합을 이끌어내 단체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 **교육감님께서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시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육가족들이 힘을 합쳐 새해에 이루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쾌적한 교실환경과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각종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며, 학교부적응 학생을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등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점차적으로 감축하고 행사 및 대회를 통폐합하며 과다한 시범학교를 과감히 축소하는 등 교육의 기본과 내실을 다져 가르침의 보람과 열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직문화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각종 제도와 정책 정비·개선에 노력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 **교육자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언제였으며, '잊을 수 없는 제자'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자삼락(君子三樂)이라는 말에 학생을 가르치는 즐거움을 한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의 단계가 다르지만 그 보람된 면에서는 무게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봅니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말처럼 저 또한 성장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의 생활이 보람과 의미를 동시에 느끼는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교육감이 된 현재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제자는 글썄요 …… 너무 많아서 ……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제 할 일을 하는 제자들을 보거나 소식을 듣는 것이 하나의 보람입니다.

■ **끝으로, 도민과 경남교육가족에게 새해 인사와 당부하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먼저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도민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의 마음으로 교육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시하고 통제하는 관료가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것

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이제 학교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를 믿고 학교교육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감과 화합의 경남교육을 기대하며, 희망찬 무자년 한 해도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실천으로



이 나 연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최초의 민선 교육감님에 대한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대와 바람이 매우 큼니다. 현재의 부모세대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비해서, 요즘은 고등학생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론화 되기도 하고,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한 학생들 다수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수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적 변화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이라는 제약과 한계로 인해, 고등학생들 다수의 건전한 의견이 적절히 교육현실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대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몇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교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심신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건전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하루 빠듯하게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교육청 주최의 각종 행사 추진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청 주최의 행사 때, 학생들 대부분은 그 행사의 본질적 취지마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영부영 시간만 허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행사 추진 그 자체가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보다 더 중요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후에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다수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바라는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은 진로에 관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직업이나 현실적 삶의 길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교육감님께서도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늘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진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진학과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나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교육청에서 손님이 오시는 날은 학생들 대부분이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무언가가 성대하게 꾸며지는 특별한 날 같았습니다. 손님을 맞아들이는 예의로써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은 교육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포장된 것은 학생들인 저희들에게 오히려 어색한 느낌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좋지 못한 측면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공식적인 방문일시를 알리지 않고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육감님이 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식이나 말씀씨보다는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우리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 많이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우리들은 교육감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을 믿습니다.



교사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정재훈
김해삼문고등학교 교사

새 정부, 새 해.

모든 것이 새로 출발하는 때에 경남의 교육을 이끌어 갈 교육감도 새로 선출되었다. 연일 신문에서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많은 일들이 개혁,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 많은 개혁, 개선이라는 것의 중심이 되는 가치라는 게 무엇일까? 아무리 많은 개혁을 하더라도 그 중심, 혹은 그 영혼이 빠진다면 모든 개혁과제들은 세월이 흘러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교육에서 중심 혹은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교육의 중심을 알기 위해 교육을 사전에서 찾아보자. 한자로 教育, 영어로 education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教育'이란 한자는 《맹자(孟子)》의 〈得天下英才而教育之(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다)〉란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글자의 구성면에서 보면 '教'는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育'은 갓 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으로 기른다는 의미가 된다.

영어의 'education', 독일어의 'Erziehung', 프랑스어의 'éducation'은 다 같이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한 것으로 빼낸다는 의미와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부적 능력을 계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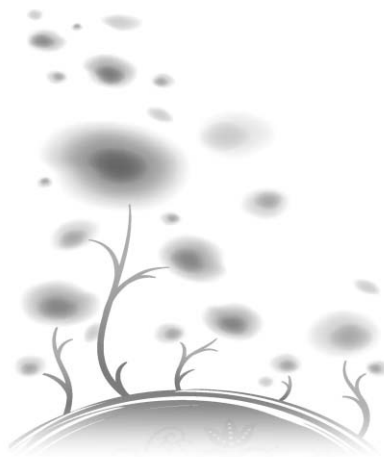
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교육에서 중심 혹은 영혼은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의 많은 부분을 학교교육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최일선을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땅의 많은 교사들이 과연 위사전의 설명처럼 ‘때’를 들어가면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교사의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더 나아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얼마나 될까? 필요하다면 ‘때’도 들어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자신감과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 나라를 장차 이끌어 갈 재목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될까?

작게는 ‘체벌금지’ 부터 크게는 ‘교원평가’ 까지 교사들의 자신감, 자긍심을 꺾는 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자신감과 자긍심이 없는 교사는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학부모의 눈치를 보고, 교육 관료의 눈치를 보고, 결국에는 학교 교육이 어디로 가는 지 방향을 잃고 말 것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신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비로소 교사의 권위가 서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여 경남 교육에도 많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 중심에 교사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이 많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교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캠페인도 좋고, 정책에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과교육 지원도 좋다. 교사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이 충만할 때, 교육이 제대로 설 것이며, 교육 현장도 밝아질 것이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백화만발한 꽃밭을 가꾸는 마음으로

윤은주

해운중학교, 월영초등학교 학부모

한참 대통령 선거와 최초의 직선 교육감 선거가 진행 중이던 때에 고향 거제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도 오랜만에 오는 전화라서 반가움 반, 의아함 반으로 받았더니 권정호 교육감 후보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했다. 권정호 교육감을 내가 잘 알지는 못하나 적어도 20여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도 제자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고마움을 심어준 좋은 스승이시라면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해서도 잘 하시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또 방과후 학교 수업 강사로는 공교육에, 학원 운영자로는 사교육에 동시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교육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 이런 마음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기대가 크면 가끔 실망도 커서 교육이야말로 애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 일하는 엄마인 나는 중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두고 있다. 요즘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성취나 경제적 이득보다 두 아이가 잘 자라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나름대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특히 학업성적을 잘 받아들 때 나는 속물스러운 엄마가 되어서 입이 귀에 걸린다. 지극한 경쟁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좀 더 높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에 유리한 상황에 놓인다는 말이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성적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때로 과중한 학습량을 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안타깝지만 결국 교육에서도 20:80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고, 이 경쟁은 사회로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의 평등을 강조하더라도 이 사실을 깰 수는 없으므로, 차라리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즈음의 교육 형태를 보면 지나친 평등주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결국은 평등도 이루지 못하고 경쟁력도 잃고 마는 어정정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실제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부터 건져준다는 명분으로 실시된 수능 등급제가 얼마나 큰 혼란과 고통을 아이들에게 주었는가. 결국은 해법

이 억지 평등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건대, 교육의 양극화가 아니라 교육의 이원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키가 큰 사람은 잘라서 죽여 버리고, 작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늘려서 죽인다면 결국 천편일률적인 사람들만 남아있을지 모른다. 백화만발한 꽃밭은 얼핏 산만해 보이거나 구석구석 숨은 아름다움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한 종류의 꽃들이 무더기로 핀 꽃밭은 얼핏 보기엔 통일성이 감탄스러우나 그 꽃이 그 꽃이므로 그다지 깊은 감동이 없다. 아니 오히려 나중엔 지루함마저 느껴진다. 교육은 천편일률의 꽃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백화만발한 꽃밭을 가꾸는 일이 아닐까. 과학고나 외국어 등의 특목고를 많이 세우고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여,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더 잘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밀어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나 다양성의 시대에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 할 수는 없고 잘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오던 사농공상의 계급의식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전문가의 길을 가면서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수월성 교육과 더불어 학벌이 아니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특성화 교육이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의 양극화가 아닌, 교육의 이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서울의 선린상업고등학교를 인터넷고등학교로 특성화시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한 것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런 다양성의 발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교육 내에서 독서나 논술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예 독서수업이나 논술이 공교육의 교과목으로 편성되고 평가 등이 적극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결국 가장 좋은 학습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독서지도는 머리모만 이해될 뿐, 손발로 실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시철만 되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논술 시험을 쳐야 되는 아이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5년 5월 무렵 서울 KBS에서 당시 교육부 수장이었던 김진표 교육부총리와와의 대담에 출연했던 적이 있었다. 교육 현안에 대하여 교육부 총리와 함께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당시 거의 모든 출연자가 교육부 총리께 강력하게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찬성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물론 교사에 대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교원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생각할 때 검증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생각한다. 권교육감께서 교원평가제 반대 공약을 내세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으나, 교육의 소비자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작은 입시제도 변화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제대로 실시해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고, 이원화된 교육으로 수월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존중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속히 조성되며, 우수교원 적극 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이 우리 교육에서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교육감 직선제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교육의 자율성을 꽃피우게 할 합리적인 제도로 생각한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직선 초대 교육감이시니 경남의 새로운 교육 수장을 맡은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도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 교육감께서 앞서서 바른 교육정책을 위해서 애쓰고 혁신할 때 우리 전체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의 앞날과 조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 바로 세우기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전/문/가/초/대/석



김 현 규
법무법인 서 경 변호사

- 법률상식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관계 등록 제도



1. '호적(부)' 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소개합니다.

2. 호주제 폐지

- 호주제를 전제로 한 호주승계제도,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등이 모두 폐지된다.
- 실제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다만 호주와 가족구성원,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를 구별하던 기존의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 혼인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야 한다든지, 이혼 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있어야 한다든지 하던 남녀차별적인 호적 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되어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던 호적제 대신 실제의 가족관계를 반영함으로써 가족의 범위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하게 법에 반영된다.

3. 자녀의 성과 본(민법 제781조)

-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과 본을 강제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 1)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2)혼인신고 시 아버지의 성 또는 어머니의 성을 쓰기로 결정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은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 3)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다.
 - 4)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여도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 5)재혼가정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4. 친양자 제도 시행

- 1)양친과 양자를 친생부모와 자녀관계로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2)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 3)재혼 가정의 경우 혼인 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 4)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한다.
- 5)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새로이 형성된다.
재혼가정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 6)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7)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8)외국의 경우 양친의 이익을 위한 친양자 파양은 인정되지 않으나, 개정 민법은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가능성(양자의 패륜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를 대비해 친양자를 위한 파양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친양자 파양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달라지는 것들

-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이다.
-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하였다.
-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기준으로 '등록 기준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신고지가 등록기준지가 되므로, 가족이 동일한 등록 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증명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5종류의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 1)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
 - 2) 기본증명서 :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증명
 - 3)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
 - 4)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사실에 관한 증명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
- 호적(부)과 가족관계등록(부) 비교

호 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등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본 적	등록기준지
전 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 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 내용을 별도의 신고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이 작성되고 관리된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권자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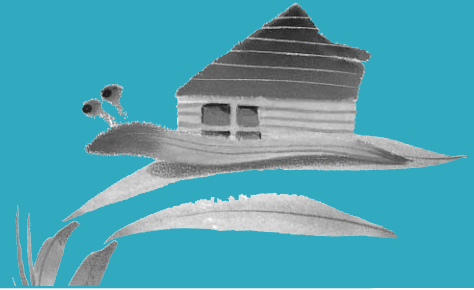
전/문/가/초/대/석



이재경

밀양 단산초등학교 교사 / 상담학 박사

교원의 정신건강(1)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염려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교원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각종 연수나 세미나의 주제로 건강 분야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적으로 질병 없이, 병원에 가지 않으며, 타인처럼 원만한 신체 활동을 하기를 원하며, 그러한 신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조깅, 헬스, 체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 건강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새로운 건강에 대한 접근방식의 필요성이 교원들에게 대두되고 있다. 정신건강이라는 측면이다. 인간은 신체, 정신, 영혼의 요소로 구성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교원들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신체적 건강도 정신작용의 영향을 받는다는 정신 심리학적 접근이 교원들에게 심도 있게 다가가고 있다.

인간의 건강은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영적 건강(종교성), 사회적 대인관계 건강 등의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의 의미는 인간의 내적 작용이 외부의 한 다른 인간 존재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교원 자신뿐 아니라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들 모두가 교원 자신에 대해서 정신건강의 소유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간 행복의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우리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1. 통계적 기준

인간의 정신적 특성이 대다수의 인간들이 분포된 지점에 모여있다는 정상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분포의

중양인 평균 지점에 밀접하게 위치하면 정상이며 평균에서 양 방향으로 벌어질수록 이상(abnormal)이라는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대인관계 등의 정상과 비정상을 단지 수리적 측면만을 고려한 정상분포 곡선상의 위치로 결정하는 기준은 한계가 있다. 극단적으로 자아성취를 이루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의 정신건강 통계학적 분포 곡선에서 살펴보면 비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적 기준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 즉,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루면서 생활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에서 사회가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독특한 사회 문화적 관점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절대적인 사회 문화적 가치가 존재하기가 힘들기도 하나 사회적으로 별 무리 없이 제시되는 특성과 기준이 있다. 특히 학교라는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관점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 처벌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기준과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가치관 관계라는 측면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갈등-생활지도의 기준, 학생처벌, 휴대폰 사용- 등은 그 기준을 단언하기가 매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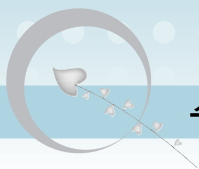
3. 개인적 고통

한 개인적 존재로서 자의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다. 타인들은 자신에게 문제나 갈등 없이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평소 가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지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자아정체감에 대한 만족도,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수용 등 개인적이며 주관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정신건강의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에 대해서 단지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인간으로서 그가 바라고 원하는 의미 있는 목적을 함의적이며 타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유익하고 봉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다면적 측면의 기준이 제시 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의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상태는 자신의 내적 외적 기능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 있음을 자신과 타인이 동시에 수용하고 인정된 것을 의미 한다.

yjkvision@hanmail.net





고 영 미

함안 아라초등학교 교사

끌리는 수업은 1%가 다르다

1. Prologue

깊은 산속 웅달샘은 토끼가 먹고 살고, 우리네 교사는 수업을 먹고 산다.

그런데 그 수업이란 것은 늘 교사를 고민하게 만든다. 매일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건만 아이들을 의도대로 끌여가기는 힘들다. 친구와 잡담하는 아이, 앞을 보고 있어도 눈동자가 풀려있는 아이……. 수업속에 다반사로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수업은 경영이다.’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교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수업을 생명으로 하는 교사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학습시간 내내 웬지 끌리게 하는 수업,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끌리는 수업을 위한 조건

- 1) 교육과정과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 : 끊임없는 연구, 폭넓은 독서
- 2) 수업에 대한 열정 : 수업 준비, 시간 지키기, 자료 제작
- 3) 언어, 행동에 있어서의 자신감과 유연성 : 웃음, 말의 속도, 고저, 음량 변화, 제스처
- 4) 학생들에 대한 온정과 공감대(rapport) 형성 : 관심 갖기, 칭찬, 염려, 평소의 인간관계
- 5) 수업 운영에 있어서의 엄격성 : 부적절 사례에 대한 일관적이고 엄격한 대처
- 6) 적절한 유머와 쇼맨십 : 유머와 쇼맨십의 생산기지는 열린 마음과 여유

3. 끌리는 수업을 위한 tip

Tip1 학습동기 유발

- 1) 부드러운 이야기로 분위기 잡기 : “축구선수 박지성이가 요즘 최고 훈남이라며?”
- 2) 수업내용과 관련된 발문 : “어제 교내 독서퀴즈대회에서 누가 일등이었지?”
- 3) 관심을 끌만한 자료(사진, 플래시 등) 제시 : “오늘은 대단한 사진부터 감상해볼까?”
- 4) 수업의 전개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기 : “오늘 우리들의 토론학습은…”

- 5) 수업 종료 후 확인·보상 제시: “보고서 잘 쓴 모둠은 급식순서 맨 처음……”
- 6) 전시학습, 사전학습과 관련짓기: “4학년때 배운 다각형의 종류에 대해 말해 볼 사람?”

Tip2 주의 집중

- 1) 눈과 귀 그리고 손가락 사용하기: “교과서를 읽는 도중,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손가락으로 짚어 봅시다.”
- 2) 침묵과 쉼(pause)을 이용하며, 긴장 상태 유지하기: 한자리 암산, 묶어세기, 뛰어세기, 구구단 역할, 곱셈, 1분간 눈감고 있다가 눈뜨기 등
- 3) 일제 행동 유도하기: ‘가’인지 ‘나’인지 적기, 몇 쪽에서 몇 쪽 사이에서 찾아보기, 모두 일어나서 앉아서 한 번, 일어나서 한 번씩 읽기 등

Tip3 칭찬의 미학

- 1)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칭찬하기: “너는 네 형 못지않게 공부도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부모님이 참 행복하시겠다.”,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아주 잘했어.”
- 2) 전체적인 칭찬과 개인적인 칭찬 적절히 활용하기: “우리반 수업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몰래 단합대회 같은 것 했니?”, “여러분과의 수업이 너무 기대려져요.”(전체) / “OO는 학습장 정리를 참 잘하는구나.” “OO, 오늘 분홍 원피스 입었네. 정말 잘 어울려.”(개인)
- 3) 공개적인 칭찬과 비공개적인 칭찬 적절히 활용하기: “OO가 그린 이 그림을 한번 보자. 색깔이 참 좋지 않니?”,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었구나.”(공개적인 칭찬) / “너 요즘 인상도 좋아지고 정말 멋져졌어.”, “자르니까 꼭 가수 비 같구나!”(비공개적인 칭찬)

4. Epilogue

긍정적이고 유연하며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학생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키워주는 부드러운 말씨로, 톡톡 튀는 유머와 칭찬의 미학으로 펼쳐가는 교실수업 현장속 학생은 그저 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끌리는 수업은 알기 쉽고, 재미있으며, 교사의 열정적인 수업행동이 있는 수업이다.

요컨대 긍정적인 태도와 ‘열린 질문’으로 학생을 대하게 되면 학생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 교사님을 향해 눈, 귀, 마음을 열고 몰두하게 될 것이다(조벽, 2001).



과학 수업 아이디어

-한자(漢字)와 함께 하는 과학 개념 익히기-



윤 송 식

함양여자중학교 교사

과학 수업을 하다보면 새로운 개념의 정의에 따른 단어가 많이 나온다. 또한 단어 뿐만이 아니라 과학 공식에도 다양한 기호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혼돈을 준다. 한글로 표기된 단어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도 있다.

중학교 과학 교과서 내용을 예로 들면 ‘조류’라는 단어는 ‘새의 무리’, ‘썰물 때문에 일어나는 바닷물의 흐름’, ‘시대 흐름의 경향이나 동향’, ‘물 속에 살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뿌리, 줄기, 잎이 구별되지 않고 포자에 의하여 번식하는 식물’ 등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조류’라는 단어를 듣고 이 ‘조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유사한 예는 우리 과학교과서나 참고서에 많이 존재한다.

중 1학년 과학 단원 중에 암석의 종류에서 ‘화성암’을 분류하고 그 이름을 암기하는데 이 역시 많은 혼돈을 가진다. 예를 들어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문자 ‘화’를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수업 시간이 지나면 혼돈을 일으키고 암석분야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수업 중에 새로운 개념이나 물질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때, 왜 이러한 이름으로 했는지를 언급해 주면 학생들의 개념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필자가 활용한 ‘한자(漢字)와 함께하는 과학 개념 익히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방법은 교실의 컴퓨터에 한글워드나 인터넷 검색을 실행시켜 두고 특정 개념 정의가 나오면 그때마다 컴퓨터로 한글과 한자를 함께 보여 주면서, 한자의 뜻풀이와 함께 이런 이유로 이 개념(현상, 물질)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간단히 설명을 한다. 필자가 이 방법을 적용해 보았더니 학생들이 쉽게 이해를 했다. 교사는 컴퓨터로 한자를 검색하여 보여주고 학생들은 한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문 자체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

과학 수업 중에 ‘한자(漢字)와 함께하는 과학 개념 익히기’를 활용한 사례 몇가지를 소개한다.

□ 화성암(火成岩)의 분류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서 된 암석으로 화산암(火山岩)과 심성암(深成岩)으로 분류되고 화산암은 다시 현무암(玄武岩), 안산암(安山岩), 유문암(流紋岩)으로, 심성암은 반려암(斑巖), 섬록암(閃綠岩), 화강암(花崗岩)으로 분류한다.

-> 화성암은 한자 뜻대로 마그마(火)가 굳어서(成)된 암석(岩)을, 화산암은 화산(火山-마그마가 외부로 노출된 곳이니깐 빨리 식는다.)에서 마그마가 굳어서 된 암석(岩)을, 심성암은 지하 깊은(深-지하 깊은 곳이니깐 천천히 식는다.)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서 된 암석이다. 현무암(玄-검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전자문의 하늘천 따지 검을현 정도는 안다.)은 검은색이고 화강암(花-꽃(밝다), 剛-단단하다. 예, 금강석, 강철)은 밝은 색이라는 것을, 결정의 크기도 세립질(細-가늘다, 粒-알갱이)은 알갱이가 작다, 조립질(造-합치다, 粒-알갱이)은 알갱이가 크다는 같이 한글과 한자를 함께 알려주면 그 단어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

□ 시각 視覺 - 보는 감각, 時刻-시간의 어느 한 시점, 時角- 천구의 북극과 천체를 잇는 시권이 자오선과 이루는 각도, 視角-물체의 양쪽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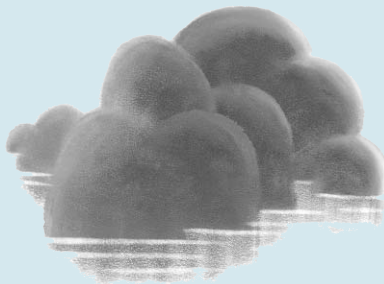
□ 조류 潮流 - 밀물과 썰물 때 바닷물의 흐름, 藻類, 鳥類

□ 대전 帶電 - 전기를 띠는 현상, 大典, 大殿, 大戰, 大田

□ 전선 前線 -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이 지표와 만나는 선, 電線, 戰線

과학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한자까지 다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한자를 위한 과학 수업이 아닌 과학개념을 설명하는데 한자를 하나의 교수학습전략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개념에 따라서 한자가 아니라 영어나 다른 외국어가 도입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개념 설명에 한자의 뜻을 도입하는 방법도 과학학습목표 도달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과학적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어려운 한자어가 아닌 이름답고 쉬운 우리말로 변하여 교과서를 장식할 그 날을 기다려 본다.



협 동 학습 의 이해



제 명 한

창녕 부곡초등학교학포분교장 교사

1. 협동학습이란?

협동학습이란 '학습 효과를 최대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들 서로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사용하는 수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Johnson & Johnson, 1993) 즉, 협동학습이란 학습 과정에 있어서 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 구성원 모두가 협동하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킨 수업이다.

협동학습은 사실 새로운 수업형태는 아니다. 예전에도 협동학습은 존재했었다. 다만 이전 협동적 수업형태에 비해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협동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습자들이 협동하지 않으면 학습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없도록 하여 협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시킨 점이다. 즉, 학습 구성원간의 역할을 세분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책임을 강화시킨 고도의 구조화된 학습 구조 중심의 수업형태이다.

여러 가지 연구로 밝혀진 협동학습의 장점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수업이 재미있고 학습의욕이 높아진다. 학습동기가 자연스럽게 고취된다.
2.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교과에 대한 지식이 증대한다.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된다.
3.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4.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발전한다.
5. 부정적 체벌보다 긍정적 보상으로 학습의욕을 고취한다.
6. 학생들이 수업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다.
7. 학생이 수업 중에 신체를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8. 학생들의 숨어있는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
9. 협동학습은 교사에게 다양한 수업전략을 제공해준다.

2. 협동학습의 구조와 모형(협동학습의 접근 방법)

협동학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학습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협동학습은 학습 구조 이론을 기반으로 발전한 교수·학습 이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업 활동은 학습 내용과 구조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학습 내용이란 '무엇

(WHAT)' 과 관련된 것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의미한다. 학습 구조란 '어떻게(HOW)' 와 관련된 것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 을 의미한다.

$$\text{수업 활동} = \text{학습내용} + \text{학습 구조}$$

케이건은 협동학습을 기존 교수·학습 방법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기법이라는 표현대신에 구조란 표현을 강조해서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협동학습 이론 자체가 협동학습 구조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협동학습 연구자들은 케이건의 협동학습을 구조 중심 협동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협동학습 이론이 구조이다. 일부에서는 조별학습과 협동학습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협동학습'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협동학습 자체가 구조인데 별도로 '구조화된' 표현을 쓴다면 동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동학습의 모형은 특정 수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업 절차에 따라 단계를 세분화하고 구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학습 수업 모형에는 STAD, TGT, JIGSAW 등이 있는데 이러한 수업 모형은 교사나 학생이 학습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적용하면 실패하기 쉽다.

3. 협동학습의 6가지 개념

협동학습의 6가지 개념은 모둠, 협동적 학급 운영, 협동하려는 마음, 협동 기술 익히기, 4가지 기본 원리, 구조이다. 협동학습의 시작은 모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이며, 모둠을 구성한뒤 학생들에게 협동하려는 마음을 심어주어야만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협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사는 협동적 학급운영으로 학생들을 잘 다루고 격려할 수 있어야하고 학생들에게는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협동기술(사회적 관계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훈련되어 있으면 협동학습의 기본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원리를 충분히 숙지하면 기본원리를 토대로 한 다양한 수업 기법, 협동학습 구조(케이건식 구조)나 수업 모형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 수업은 다양한 학습 모형이나 구조들로 표현된다. 다양한 협동학습 구조들이나 수업 모형들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면 수업을 보다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학습의 6가지 원리

모둠(Team)	구성 ⇨ 4명 1모둠(성별 능력별 이질 모둠), 운영기간 ⇨ 5-6주	
협동적 학급운영 (Management)	책상 배치, 각종 신호, 모둠 토의 방법, 개인(모둠) 접수, 무임승차(학습방관자) 해소	
	운영 기술	① 1가지씩만 지시(한입씩만) ② 시범 보이기 ③ 반드시 확인을! ④ 긍정적인 관심 집중 ⑤ 동시다발적 상황 만들기
협동하려는 마음(Will)	모둠 세우기 (team building)	▶서로에 대해 알기 ▶모둠 정체성 ▶상호지원 ▶차이점 존중하기 ▶시너지 개발
	학급 세우기 (class building)	▶서로에 대해 알기 ▶학급 정체성 ▶상호지원 ▶차이점 존중하기 ▶시너지 개발

협동하려는 마음(Will)	과제와 보상 (task & reward)	▶협동과제-모둠의 도전 ▶교사(학생)주도적 다구조 학습 ▶활동원칙 ▶보상-향상점수 ▶내적(외적)동기유발 ▶우화 ▶점수로 할 수 있는 것
협동기술 익히기		▶칭찬 방법 ▶협동 예절 ▶과제분담 요령 ▶충고와 조언 ▶갈등해결 방법 ▶사회적 기술 센터 운영
4가지 기본원리	긍정적인 상호의존	서로서로 의지하며 도움을 주고 받는다. ⇨ "잘되어야 나도 잘된다"
	개인적인 책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 "맡은 일은 내가 잘 할게"
	동등한 참여	모둠원들이 모두 평등하게 참여한다. ⇨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어"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구경꾼 없이 다같이 동시에 활동한다. ⇨ "다같이 동시에"
구조	암기속달구조, 사고력신장 학습구조, 정보교환구조, 의사소통기술향상구조	

4. 협동학습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협동학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협동학습을 단순히 하나의 교육풍조 내지 유행으로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협동학습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협동학습에 대한 교사 나름대로의 고민과 깊은 성찰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교사가 선불리 협동학습을 시작했다가는 실패하기 쉽다. 그러므로 협동학습의 기본원리를 무엇보다 잘 이해하고 교사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협동학습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으로 협동학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상제도와 몇 가지 신호, '생각- 짝-나누기' 나 '짝 토론' 등 간단한 방법부터 적용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 보다 복잡한 구조나 방법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교사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교실이 산만해지고 무질서해질까봐 우려한다. 사실 협동학습을 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협동학습이라고 볼 수 없다. 협동학습의 성패는 수업에 대한 철저한 구조화와 학생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데 달려있다.

넷째,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쟁 요소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을 위해서 적절하게 경쟁을 도입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동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교사가 수시로 협동하는 방법이나 의사소통기술 등 사회적 기술을 직접 가르쳐야 한다.

여섯째, 모둠 활동에 대한 교사의 관찰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과제만 부여하고 교사는 가만히 이를 지켜보아서는 성공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 학생들이 협동하여 공동의 학습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교사는 모둠을 돌아다니며 지도해야 한다.

일곱째, 모둠 구성이 모둠 활동 성패의 중요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모든 단원을 협동수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단원 내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여러 가지 구조를 활용해야지 무리하게 협동학습을 적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소식

박진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8년도 연금인상률 '2.5%' 1월 중 연금인상내역서 개별 우송 예정

2008년도 공무원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5% 인상된다.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년도(2006년)와 대비한 전년도(2007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2월 31일 통계청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5% 인상된 것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연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으로 오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연금수급자의 연금수급계좌로 각각 지급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금년도 연금인상에 대한 세부사항과 연금제도 등을 설명한 '2008년도 연금인상내역서'를 1월 중 모든 연금수급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할 예정이다.

부안상록해수욕장 콘도개발 추진 주변 관광 자원과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사업성 양호해

공단은 공무원 연금가족의 하계 휴양시설인 부안상록해수욕장을 콘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상록해수욕장은 전현 직공무원의 하계 휴양시설로 '08년부터 방갈로와 상가 등을 운영했지만, 시설이 노후되어 최근 새로운 개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부안상록해수욕장 부지에 대한 콘도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천혜의 자연경관과 공항 이순신세트장, 격포채석강 관광지 및 새만금 방조제 도로 개통 예정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콘도개발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설계 및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년 상반기에 콘도분양과 운영을 전문 콘도사에 위탁하여 개장할 예정이다.



박금남

김해 한림초등학교 교장



자연과 어우러진 학교

벚꽃 휘날리는 가로수 너머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화포습지를 바라보며 푸른 보리와 한가로운 날갯짓 하는 백로를 뒤로한 채 김해시 한림면에 들어서면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414번지에 위치한 한림초등학교가 보인다. 260여명의 학생들이 예의바르고 건강하며 큰 꿈을 키우는 창의적인 어린이로 자라나는 보금자리다. 이곳에서 한림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예절바른 어린이, 몸과 마음이 조화롭고 의지가 강한 어린이, 스스로 공부하고 창의적인 어린이, 큰 꿈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침이면 도서관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조잘거리는 소리가 정겹다. 2006년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 운영비와 교육청 지원비, 동창회의 도움으로 지은 청운관(靑雲館)은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오면 꼭 들렀다 가는 곳이 되었다.

“어떤 책이 좋아요?”

“어제 도서관에서 읽다가 말았는데 빌려주세요.”

“야! 내가 먼저 빌려보기로 했잖아, 니가 빌리면 어떻게 해? 내가 볼 거야.”

아침 도서관은 책가방을 맨 채 책을 빌리려는 아이들 줄로 가득하다. 자기 몸 보다 더 커 보이는 책가방을 맨 1학년 아이들도 언니 오빠의 손을 잡고 새로 만든 도서 대출증을 조막만한 손에 들고서 즐거운 얼굴로 줄을 선다.

푸른 꿈이 영그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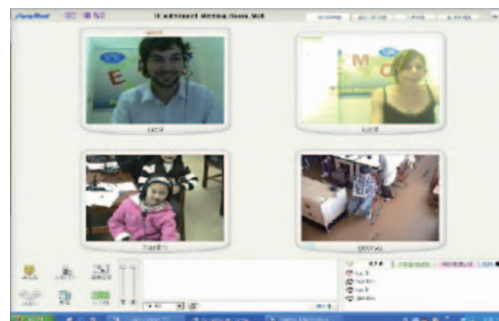
깨끗하고 즐거우며 학생의 창의성을 키우는 한림초등학교는 학생을 사랑하고 꾸준히 연구하며 신뢰받는 교사, 학교를 이해하고 자녀교육활동에 동참하는 학부모들이 학생을 중심으로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다양한 표현활동으로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기초와 기본교육의 충실은 물론,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며, <화포습지 사랑>의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꿈과 사랑을 가꾸는 학교이다.

한림면의 면 소재지에 위치한 지역의 중심학교로 각 기관의 문화·체육행사의 장이 되고 있으며 열두 학급, 특수학급 하나와 유치원 한 반이 설치되어 있고 컴퓨터실, 과학실, 도서관, 체육관 등을 갖추어 지역민과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역시 농업, 상업, 회사원으로 고른 직업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교과보다는 창의적 재량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학교의 방과 후 교실이나 습지 시범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해 주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춘 맞춤형 영어교육

특히,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 김해에서 유일하게 호주원격화상영어 교실을 학교 총동창회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IUC-EMC(International University Consortium-English Mentor Class)와 화상 영어교육 협약을 맺고, 본교의 3~6학년 중 영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주 원격화상 영어 교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영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동요대회와 다양한 표현활동 실천을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아침 활동 시간을 이용한 영어 의사소통 학습은 물론 영어듣기 경연대회, 영어말하기 경연대회, 영어 연극 경연대회, 영어 골든벨 등의 영어재능 자랑하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올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영어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친숙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독서·논술을 통한 창의성 신장

정보, 지식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책은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인류 최고의 지적 자산이며,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가 가득 담긴 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영상 매체의 홍수와 정보사회의 급변으로 즉흥적인 표현활동이 지배적이다. 어린이들에게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와 탐구보다 단순하고 성급한 감각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한림초등학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심오한 가치 탐색과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과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함으로써 아동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지역 정보화에 일익을 맡고 있다. 독서·토론·논술 교육의 강화를 위해 방과후교실을 이용한 독서논술 교실을 주 4회 실시하고 있으며 달마다 사이버 독후감 대회를 열어 시상하고, 도서실의 디지털자료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각종 백일장과 독후감 대회,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7월에는 김해에서 최초로 김해문인협회와 함께 찾아가는 백일장을 개최하기도 했다.



습지가 뭐야? -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변화들

처음에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에게 환경이라는 주제로 특히 습지라는 생소한 것을 교육에 접목시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많았다. 아무도 습지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없었다. 인근에 화포 습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었다. 처음은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랍사르총회의 밑거름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그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학교의 울타리 속에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모두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림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화포습지사랑 체험활동을 통해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습지보전의식 기르기’ 라는 주제로 2006년 2월부터 화포습지사랑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연수 및 현지탐방을 통해 학교단위에서는 경남최초, 아니 대한민국 최초로 습지보전에 대한 열의를 키워갔고 경상남도지정 습지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아름다운 습지,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화포습지를 이용하여 화포습지를 사랑하고 보전하기 위한 <화포습지 사랑> 습지시범학교를 실시하면서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의 지원을 얻어 보트를 구입하고 김해지역의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화포습지사랑 체험 한마당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역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 KBS, MBC에 학교의 활동이 방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신문에도 30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이는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화포습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의 발현이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거제도 환경단체인 ‘초록빛깔 사람들(대표 김의부)’ 인제대 환경 공학부, 김해생태보전교사모임, 김해시청, 한림면주민센터와 같은 유관 기관과 전문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습지 체험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교사 연수, 현장 체험 학습, 습지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도움 받았다.

화포습지사랑 체험활동으로 학교가 주위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교실 안에서의 환경교육을 학교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실시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화포습지보전은 물론 국제적인 환경회의인 랍사총회를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교는 앞으로도 습지 체험 학습자료센터 구축,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습지체험 학습지 <나의 사랑 화포>제작, 관찰탐구대회 및 습지 관련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박금남 교장은 ‘우리 한림초 가족 공동체가 화포습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고, 이를 통해 화포습지를 보다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심과 협조로 화포습지를 알리고, 환경보전의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여는 세상을 위한 발걸음 - 세상을 향해 외치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하고 이에 따라 교육의 주체인 아동과 학부모의 요구도 다양하고 거세다. 그러나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역동적이어야 할 학교는 변화를 쫓아갈 뿐 리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림초등학교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이 시대에 학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교육활동을 창출하리라 기대된다.

끝으로 한림초등학교의 이러한 노력들이 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뽕꾸디와 습지

고 학 병

경남교육청 교육정보화와 장학사

“뽕꾸디! 장학사”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갯(?)상도에서 갯벌이나 습지라는 말보다는 뽕, 개(갯가), 둠병, 뽕꾸디라는 말이 옆집 아지매 이야기처럼 친근하게 들린다. 습지하면 ‘늪 빠진 000’, ‘수렁에 빠진 000’, ‘악어떼(?)가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곳’, ‘더럽고 불결하고 모기 많고 냉장고나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곳’, ‘쓸모없는 땅이라 흙을 메워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사실 습지나 람사르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놀던 곳이고 자주 보는 곳이다. 바닷가의 갯벌, 산간 계곡에서 도랑을 거쳐 낙동강 강가까지 모두 습지이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논도 습지고 천수답에 물을 주는 둠병도 습지이다.

2008년 람사르 총회가 경남에서 열리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습지와 람사르라는 낯선 낱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이제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도 쉽게 듣고 이해하는 말이 되었지만, 아직 습지는 우리와 먼 곳에 있는 느낌이다.

남사 녀사 우사

경상도에서 쓰는 ‘남사스럽다’ 라는 말이 있다.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녀이 알모 녀사고 우리끼리 알면 우사라고 한다. 표준어 ‘남우세스럽다’ (남에게서 조롱 또는 비웃음을 받는다)의 사투리이다. 환경단체가 람사르총회를 보이콧 하면서 하는 대표적인 말이 남사(?)총회이다.

람사르 총회도 처음에는 람사총회라고 불렀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 언론에서 람사라고 불렀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람사르라고 1999년에 사전에 등재했다. 람사와 람사르 중 어느 말을 공식적인 말로 해야 할까? 하고 회의하고 고민을 하면서 결론은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문교부고시 제85-11호, 1986.1.7)에 따르기로 했다.

한글 맞춤법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권의 인명·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한다. 문제는 람사의 원음이다. 흔히 하는 말로 네이티브 스피커가 어떻게 발음하는가에 따라 글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람사가 뭘까?

Ramsar 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쉽게

풀이하면 물에 사는 새(조류)가 잘 살 수 있도록 습지를 보호하지는 국제 협약이다. 1971년 이란의 도시 Ramsar에서 협약이 처음 채택되어 Ramsar 협약으로 불리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람사는 이란의 도시 이름이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Ramsar라는 도시에서 처음 채택되어 Ramsar 총회가 되었고, 채택된 2월 2일을 기념해서 해마다 2월 2일이 되면 습지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CEPA(Communication,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2008년에 경남교육계에서 자주 듣게 될 말 중에 하나다. 세파 또는 시파라고 부르는데 경상도 말로 세가 만밭이나 빠질(?) 것처럼 어렵게 들리지만 습지교육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2007년 한해 동안 경남교육청에서 습지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습지 알리기 만화, 습지교육 교재, 교구 등 많은 준비를 했다. 2008년 3월부터는 개발된 자료가 일선학교에 보급되고 현장체험학습과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amsar 10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2008. 10. 28(화) ~ 11. 4(화) - 8일간
총회 주제 :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





보물섬 남해교육 성과 보고회 참관기

김 종 도 (전 해양초등학교장)

1

학교 현장을 떠난 지 7년여, 여러 차례 교육성과 보고회 및 퇴직교원 위로 초청연 등 남해교육청의 배려로 약간의 교육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교육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가족이 있기에 그렇게 서툴지 않게 느끼고 때로는 향수를 달래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43년 년간 교직에 몸담아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62세라는 젊은 나이(?)에 명예 및 정년퇴임이라는 희한한 정책에 따라 사회인으로 나온 후 학교라는 곳에는 거의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부감으로 꼭 차 있었기에 나 자신의 자서전 ('머물다 간 흔적')에서 교육자로서의 실패와 현장 고발 같은 글로 가득 채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다 우연하게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위촉으로 2006년도 4월 '경남교육정책 혁신자문위원'과 같은 해 6월 (경남교육정책 홍보 전문위원)이 된 후 앞서가는 경남교육의 홍보 전령사로서 학부모 강의와 지역 신문사의 투고 등으로 소임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다.

특히 경남교육은 「신뢰받는 학교·감동주는 교육」이란 슬로건 아래 3·3·3혁신프로젝트(3無운동, 3out운동, 3 Together 운동)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보물섬 남해교육도 「참되고 실력 있는 남해인 육성」에 앞장서고 있어 희망이 보이고, 앞날이 밝아 보인다.

그리고 남해군 행정 당국에서도 보기 드문 지원(2006년도 10억 3천만원, 2007년도 52억원 등 2011년까지 150억원이상을 투입)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교육도시·평생학습도시 「남해」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옛날에도 방과후학교 활동을 안 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학교장 시절에도 특별활동 「문예반」 학생을 직접 지도하였고, 특기 지도를 그룹별로 선생님이 하였지만 행·재정적 지원은 전연 없었다. 입시 지도와 공급자 위주의 교육패턴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월성 교육은 사실 힘들었다. 그러나 이젠 수요자 중심의 교육방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그리고 현장의 변화에 따른 욕구 때문인지 확 바뀐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2007년 남해교육의 방과후학교 활동 상황을 관망하였다.

성과물 전시장에서 우선 질적 차별이 눈에 띄었고, 교육 정보화 작품의 질적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발표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남해초등의 합창부, 남명초등의 줄넘기, 성명초등의 화전농악 풍물패는 수준급을 뛰어 넘어 명실공히 남해교육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도 남졌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적성·특기 교육을 함으로써 제 2·3의 김연아, 박태환 등이 배출될 것이고 꿈과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3

학교는 희망의 터전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펼쳐주는 최고의 봉사자며, 학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국가의 보물이기에 우리 모두 내일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경남교육·남해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당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한 김길수, 조재규 교육위원과 선·후배 퇴직교원, 그리고 학부모님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전직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되찾아본다.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이 준 지혜

진주여자중학교 3학년 주 지 영

이 일은 제가 아무 걱정 없이 동네 아이들과 온 동네 곳곳을 누비고 다니던 다섯 살 배기 꼬맹이였을 때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느닷없이 예쁜 슬리퍼를 한 켤레 내미셨습니다. 투명한 색깔에 화려하게 달린 장식, 동화책에서나 보았던 신데렐라의 구두 같은 그 슬리퍼는 어렸던 저의 눈에도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돈 4000원의 그것은 당시로서는 꽤 비싼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지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잘 신어야 한다. 알겠지, 지영아?” 여느 때와 같이 “네.”하고 잘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는 그 말씀을 마음 속에 새기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리하여 저는 동네 꼬마들을 따라 놀러 나갔고 술래잡기며 숨바꼭질을 하며 몇 시간을 보내다가 놀이터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다 발을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새 신발이어서 그런지 물집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몰라도 발이 따끔따끔하고 발갛게 부어 오른 것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 습니다.

저는 곧장 가장 좋아했던 그네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전 성격이 그렇게 얌전하지도 않았나 봅니다. 발이 아파서였을까요? 슬리퍼라서 놀기에 불편했을까요? 저는 신발을 벗어 그네 옆에 놓아두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발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네에서 내려와 모래 탑도 쌓고 미끄럼틀도 타고 계속 돌아버렸던 것이지요.

해가 머리 꼭대기로 떠오르고 배가 고파진 아이들은 잠시 뒤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각자 집에 갔습니 다. 저도 역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래밭에서 일어났지요. 그런데 발바닥이 축축한 것 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그네 옆에 벗어 둔 신발을 떠올렸습니다. ‘아차! 싫어 얼른 달 려가 보니 신발은 온데 간데 없고 허물어진 모래 탑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누가 장난을 쳤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제야 엄마의 말씀이 떠오른 저는 혼날 것이 무서워 맨발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신발을 찾아 다녔습 니다. 신발이 놓여 있던 모래밭을 파 보기도 하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밑을 기웃거리 보기도 했습 니다. 지나가던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신발은 나타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기를 몇 십 분, 저는 어머니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에 맨발로 집까지 달려갔 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매정하게도 맨발인 저를 집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때서야 무언가 저 를 두렵게 만들었고 끝내 집 밖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옆집 아주머니께서 나오셨

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숨이 넘어갈 듯 울먹이며 설명을 했고 아주머니께서 우리집 초인종을 누른 뒤에야 어머니께서 나오시더군요.

결국 다른 신발로 갈아 신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신발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놀이터 다음으로 신발을 찾아본 곳은 옆 화단이었습니다. 파란 풀들 저 인쪽에 무언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한 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도 짓궂은 장난을 쳤는지 나머지 한 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니께선 화난 얼굴로 돌아보시며 저를 몹시 꾸중하셨습니다. 그때 가만히 혼자 있던 전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그래도 한 개는 찾았잖아요.”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옵니다.

그 사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걸 보면 저에겐 크나큰 충격이었던 모양이지요. 그때 저는 물이 같이 있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나 봅니다. 그 신발사건 덕택인지 그 뒤로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새겨들게 되었고 한 쌍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짝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물건을 아무 곳이나 내팽개치는 일도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내 물건에 신경을 쓰게 되었으니 어릴 적 추억의 신발 한 짝 사건도 저에게는 꽤 괜찮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일석삼조의 격인가요? 아직도 무슨 물건이 없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전부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여전히 의문점은 많이 남지만 그래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만은 무척 훈훈해집니다.





행운의 절반 친구

스탠 텔러 / 위즈덤하우스 / 2007

-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친구사이에서도 계산이 앞서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 책은 그런 '친구'에 대한 관조에서 비롯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 커피의 도시 '시애틀'의 어느 커피숍을 무대로 한 주인공 '조 코래드'의 이야기이다. 외톨이였던 조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엮어가는지, 맥을 비롯한 친구들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야기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행운의 절반은 나의 노력으로부터 오고, 행운의 다른 절반은 친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경쟁사회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권오분 / 마음의숲 / 2007

- 바쁘게 돌아가는 요즘 세상에서는 먹는 일도 허겁지겁이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옛날에 만들어 먹었던 음식과 옛날 조리방식을 소개하면서 여유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루 세끼 먹는 밥. 어떤 생각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영양소가 될 수도 있다. 밥 한 그릇의 혁명이란 말처럼 밥 한 그릇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준다. 따라서 바쁘게 먹고, 돌아서면 무엇을 먹었는지 모르는 식사법은 이제 그만 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너무 빨리 먹고 너무 몸에 좋은 것만 찾아 먹으려다 보니 진정으로 우리가 잊고, 잃어가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소박하지만 따스함이 묻어 있는, 느리지만 여유로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밥상이야말로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생명의 밥상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20세기 한국교육사

이길상 / 집문당 / 2007

- 20세기 한국교육의 역사를 연구한 책. 근대교육의 전파자였던 식민지 권력, 선교사, 군정세력, 독재권력하에서 이룩한 많은 교육적 성취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음과 동시에 우리 교육사를 보는 지나친 민족주의적 시각에 대한 경계와 비판도 담고 있다. 책은 총5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는 '근대교육의 전파자', 제2부 '미국, 미국교육의 진실' 제3부 '미군정의 교육정책과 우리 민족의 대응', 제4부 '미군정기의 교육실태' 제5부 '교육전쟁의 시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다른 시기에 비해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는데, 봉건교육과 근대교육, 전체주의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 민족교육과 분단교육, 자본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이 충돌하는 현상이었던 이 시기의 교육을 통해 우리 교육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보고 있다.



중국사의 수수께끼

김영수 / 랜덤하우스 / 2007

- 15개의 현대적 쟁점들을 통해 중국사를 가르치려며 소개하고 있는 책. 중국을 왜 알아야 하는가를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남겨진 중량감과 흥미를 동시에 갖춘 주제들을 통해 차분하게 설득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인 저자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중국 알리기를 지속해왔고 이 책은 그 과정을 되돌아본 자성의 결과물이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면서도 나아가 그것을 통해 오늘의 중국까지도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고자 하였다. 따라서 15개의 주제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 역사와 사회 각 방면에 던져진 다양한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로 골랐다.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과 희귀도판은 중국문화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전달 하며, 현대 한국인의 관점에서 해석한 새로운 중국사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교원지상갤러리



그 곳에 가면

이 그림은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계시던 고향 마을을 들어설 때 동네 어귀에 있던 큰 정자나무입니다. 그 곳을 지나 갈 적마다 보았던 여름이면 잎이 푸르고 무성하던 모습과 겨울이면 생존을 위한 버림'을 한 나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련합니다.



- 고성 대성초등학교 교사
- 교원예능연구대회 한국화 입상
- 성산미술대전 입선
- 2007 경상남도 미술대전 입선

강 정 임

